

유물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

홍 주 희
강원고고문화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 III. 석기의 생산과 소비 |
| II. 토기의 생산과 소비 | 1. 생산단위의 변화와 제작기법 |
| 1. 무문토기의 마연기법 채용 | 2. 석기의 조합과 소비 |
| 2. 기종과 소비방식 | 3. 특수재의 수급과 소비 |
| 3. 토기의 재활용 | IV. 북한강유역 경제활동의 변화 |

I. 머리말

고고학적 유물에는 생산, 분배하여 사용하다가 폐기되는 일련의 경제적 행위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향과 정체성, 사회구조 등 사회·이념적인 영역까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연구는 이를 역추적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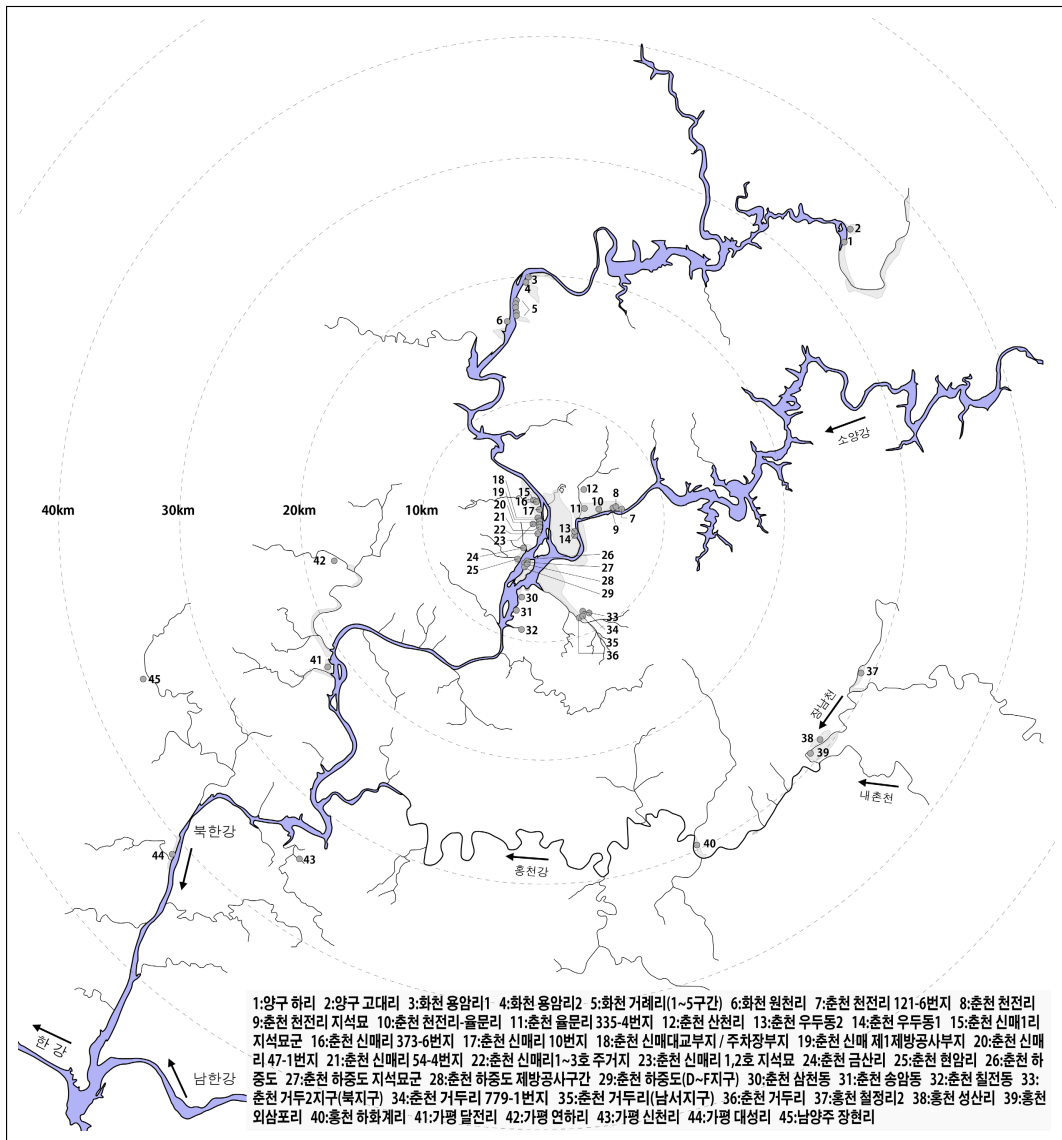
토기와 석기의 생산과 소비는 신석기시대부터 비롯되었지만, 청동기시대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정착생활과 경제활동이 본격화되어 남겨진 유물을 통해 이를 복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일련의 경제활동에는 단순히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비롯해 그 기저를 이루는 경제활동의 주체와 체계, 생산된 재화의 분배와 유통까지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물에 대한 기초적인 선행연구와 유물의 출토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취락 혹은 지역단위의 논의를 거쳐야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유물의 제작흔과 사용흔 분석, 실험결과들은 유물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과 소비방식을 밝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이며,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는 유물의 life cycle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 향후 관련된 행위나 주체(집단)에 대한 연구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출토유구와 취락의 시·공간적 맥락을 배제한 유물 자체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추상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당한 편년안을 기반으로 취락의 분기별

양태와 하위지역적인 양상 파악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구체적이고 다양한 경제활동의 복원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유물을 통해 본 생산과 소비’를 주제로 삼았으나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복원이 다소 추상적이며 생산과 소비라는 넓은 범주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그 대상을 장기 지속적인 취락자료 확보가 용이한 북한강유역(지도 1) 출토유물로 한정하였고, 취락 차원에서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주제, 체계에 주안점을 두고 생산과 소비방식의 시간적인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키스 월킨스-크리스 스티븐스 著 안승모-안덕임 譯 2007:191). <표 1>과 같이 주거형태와 취락구조, 표지유물을 기준으로 하는 편년안을 토대로 유적을 분류·적용하였다.

표 1. 북한강유역 취락편년(안)

구분		주거형태	취락구조	표지유물	주요유적
조기		대형 주거	點狀/ 線狀	돌대문 · 이중구연토기 무경축, 장방형 석도, 편평석창, 궁구형석기	화천 거례리 ·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121-16) · 신매제1제방 · 금산리 · 현암리 · 하중도(D · E)유적, 홍천 하화계리 · 외삼포리 · 철정리유적, 가평 대성리 · 연하리유적
전 기	전 반	가락동식, 역삼동식	線狀	구순각목 · 궁열토기, 이중구연토기 유병식 석검, 무 · 유경축(일 · 이단경-참근), 장주형 · 어형석도, 주상석창, 부리형석기, (동북형)석도	화천 용암리(I) · 거례리(2~4B) ·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121-16) · 우두동(I) · 신매리(신매대교부지 · 신매제1제방) · 금산리 · 현암리 · 거두리(2지구)유적, 가평 달전리유적, 홍천 외삼포리 · 철정리유적
	후 반	역삼동식, 변형 역삼동식, 소형 방형	面狀	(구순각목)궁열토기 유병/유경식 석검 · 석창, 무 · 유경축(일 · 이단경-참 · 평근), 주상석창, 장 · 단주형 · 어형석도, 부리형석기	화천 용암리(I · III) · 거례리(3-5) ·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 · 우두동(I) · 신매리(신매대교부지) · 현암리 · 거두리(779-1번지 · 남서지구) · 송암동유적, 가평 달전리 · 대성리 · 신천리유적, 홍천 철정리유적
중 기	전 반	천전리식, 소형 방형	多面狀	궁열토기, 무문토기 유경식 석검 · 석창, 무 · 유경축(일체형 · 일단경-평근), 유구석부, (장)단주형석도	화천 용암리(I · III) · 거례리(1 · 3-5) · 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 · 우두동(I) · 신매리(10번지 · 54-4번지) · 금산리 · 하중도(D · E · F) · 거두리(2지구)유적, 가평 달전리 · 대성리유적, 홍천 철정리유적, 남양주 장현리유적
	후 반		多面狀	(궁열토기), 무문토기 유경식 석창, 유경축(일체형 · 일단경-평근), 유구석부, 단주형석도	화천 용암리(I · III) · 거례리(1 · 3-5), 춘천 천전리 · 우두동(I) · 송암동 · 삼천동(순환도루부지)유적, 가평 달전리유적, 홍천 철정리 · 성산리유적
후기		천전리식, 소형 방형 (점토대토기 주거 포함)	多面狀/ 面狀 (통합)	무문토기, 점토대토기(관련유물 포함) 무경축(삼각)	화천 거례리(3-5)유적, 춘천 천전리 · 현암리 · 하중도(D · E · F) · 철전동유적, 홍천 철정리 · 성산리유적



지도 1.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 유적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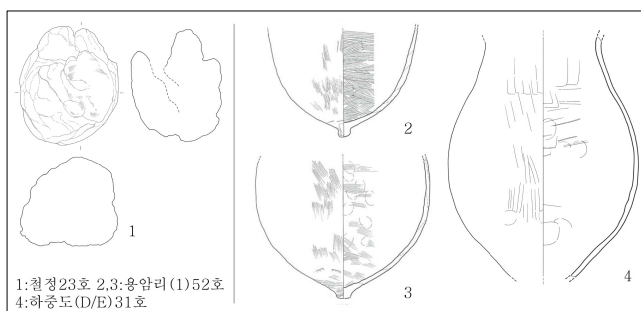
II. 토기의 생산과 소비

북한강유역 내에서는 토기의 생산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토기의 생산으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북한강유역에서 옥외의 생산시설로서 공방이 출현한 시점은 전기 후반이지만 공방 내에서 토기를 생산한 근거는 토제방추차 외에는 찾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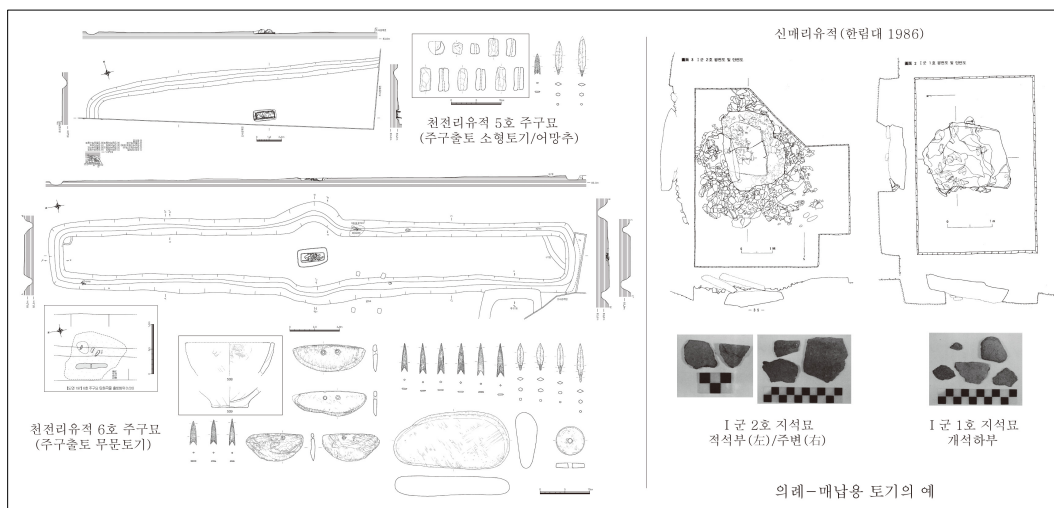
없고, 주거 내부에서도 소성 실패
품이 출토된 예만 있을 뿐 일상
용기로서 대부분의 토기류는 옥
외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1).

자연과학적 분석(이지현 2006
; 엄진영 2008)을 통해 이 지역
의 토기류는 인근으로부터 원자

재를 입수해 취락별로 생산했을 것이며, 운반과정에서 파손 우려가 큰 토기의 특성상 출토
예가 적은 의례와 매납용 토기류 역시 자체 생산 혹은 인접 취락으로부터의 근거리 유통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각형토기와 같은 타지역에서 유행하는 양식의 토기류(도면 2)의 경
우 제작기술을 공유했던 것인지, 실물이 유통되었던 것인지에 관해서는 철저한 검증 후 논
의해야 할 것이다.



도면 1. 소성실패품(左)과 각형토기(右) - 축척동일



도면 2. 의례·매납용 토기의 예

청동기시대 토기의 문양과 기종의 변화는 편년이나 특정 문화의 확산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어왔고, 북한강유역 역시 동일한 맥락에 속해 있다. 필자는 편년의 기준으로 인지되던 토
기의 변화양상들이 일상적인 소비(자비·배식·저장)패턴을 비롯한 기저의 사회적인 배경과
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간
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무문토기의 마연기법 채용

적(갈)색 마연기법은 정선된 태토와 얇은 기벽의 대부호·단경호·장경호·완 등 특정 기종의 토기에 적용된 토기제작기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토기를 전형의 적색마연 토기라 한다(송영진 2003:8~11). 본고에서 전제한 편년안에 따르면 초기에 소량의 대부토기(완)와 장경호에 사용되었으며, 전기에 이르러 대부호·단경호·장경호·완의 기종에 적용되어 성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초기의 적색마연토기는 전기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에는 북한강유역의 출토예가 적고 공반유물 역시 매우 단절적이다(박영구 2012:43). 중기에는 이러한 마연기법이 일반 무문토기 기종에 적용되어 전기의 대부호·단경호·장경호·완 등의 기종은 점차 소멸하는데, 무문토기 기종에 마연기법이 채용되는 현상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다(도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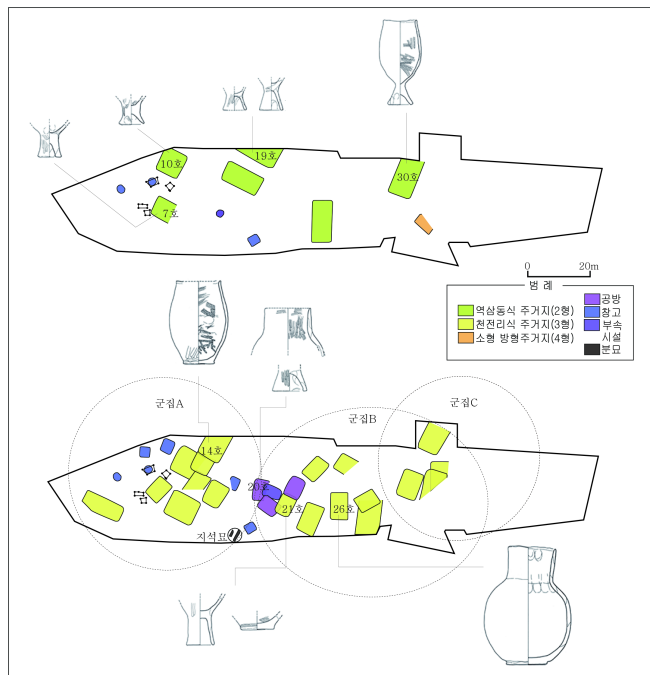
기종	대부호	단경호	장경호	완 / 발
초기				
전기	                 	             	                                               	
중기				
후기				

1,4:신매제1제방 1호 2:하화계리 1호 3:금산리 B1호 5:거례리(3) 41호 6-13:신매대교부지 21호 14:우두동(1) 14호 15:우두동(1) 30호 16,17:우두동(1) 19호 18:우두동(1) 7호 19:우두동(1) 10호 20:현암리 49호 21,22:현암리 46호 23,24:현암리 20호 25:신매제1제방 2호 26:용암리(1) 20호 27:용암리(1) 42호 28:거두2지구 4호 29:우두동(1) 1호 30,38:용암리(1) 131호 31:거두2지구 7호 32:현암리 14호 33:용암리(1) 30호 34:거두2지구 2호 35,36:신매대교부지 21호 37:거두2지구 4호 39:현전리 50호 40:철정리 A22호 41:신매대교부지 21호 42:우두동(1) 21호 43,49:신매리54-4 8호 44:철정리 16호 45:우두동(1) 20호 46:우두동(1) 21호 47:우두동(1) 26호 48:하중도(D/E) 17호 50:거두2지구 10호 51:철정리 C4호 52:거례리(3) 19호 53,54:거례리(4B) 15호 55:철정리 A15호 56:장현리 수2호 57:거례리(3) 66호 58:성산리 2호 59:장현리 8호 60:장현리 6호 61:하중도(D/E) 20호 62:현전리 17호 63:우두동(1) 23호 64:현전리 29호 65:우두동(1) 22호 66:우두동(1) 27호 67:거례리(4B) 9호 68:현전리 72호 69:신매리373-6 4호 70:철정리 17호 71:현전리 42호 72:현암리 55호 73:거례리(5) 11호 74:우두동(1) 20호 75:거례리(3) 14호 76,77:거두리 18호 78-81:거두리 13호 82:현암리 17호 83:신매대교부지 26호

도면 3. 북한강유역 마연토기의 분류 · 편년안 - 축척동일

소비적인 측면에서 중대형 호의 기종에 마연기법이 적용된 것은 의례용과 같은 특수한 목적이지 아닌 자비나 한시적 저장과 같은 일상적인 기능에, 의례 혹은 부장용의 ‘붉은 색의 광택이 있는 토기’가 내포하는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추정된다¹⁾.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일반 무문토기의 표면이 적(갈)색으로 발색되도록 하는 제작기법도 함께 계승되었다. 주거형태상 역삼동식으로부터 천전리식으로의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두 분기간의 친연성 혹은 계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매리유적(54-4번지/10번지)과 철정리유적에서 중기의 천전리식 주거에서 적색마연단경호의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으며, 장경호 역시 기형의 차이는 보이지만 거례리유적·우두동 I 유적·신매리유적(54-4번지)·거두리유적(2지구)·외삼포리유적·하중도유적(D·E지구)·철정리유적·성산리유적·장현리유적 등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현하는 중기 후반까지 지속되는 경향이다.

적색 보다는 갈색마연토기가 주로 출토된 우두동유적은 <도면 4>와 같이 각각 전·중기로 편년하였으나 주거의 배치상 갈색마연토기가 사용된 역삼동식과 천전리식 주거의 공존 가능성도 있어 다수의 주거군집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갈색마연토기가 명맥을 이어가며 장경호가 생산·소비된 것으로 파악된다.



도면 4. 우두동유적 I 전·중기 갈색마연토기 소비의 예
- 축척동일

2. 기종과 소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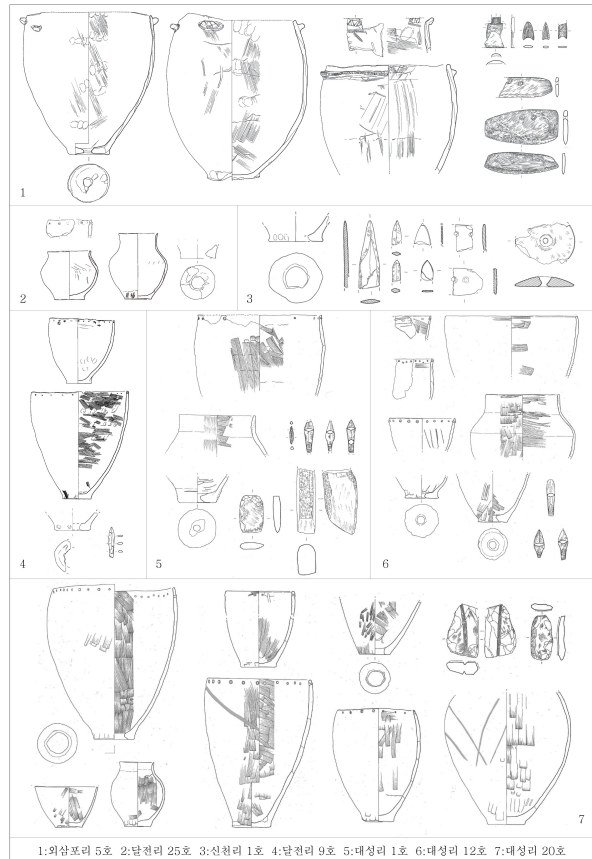
1) 대형 호형토기의 기형변화(발표문 생략)

1) 방수나 보강을 위한 것으로 파악(노혜진 1987)하기도 하지만 무덤이나 의례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측면 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된다.

2) 저부투공토기의 확산과정과 의미

저부투공토기는 송국리유형의 유입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이진민 2005 ; 김한식 2006)가 있지만, 중부지역 전·중기 역삼동유형 거점취락간 교류의 근거로서 충남지역에서는 그 분포양상이 선송국리 물질문화의 확산과정과 일치해 선송국리유형으로서의 역삼동유형과 송국리유형간의 관계가 연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구혜영 2013). 저부투공토기의 주 분포권이 경기 서남부와 호서지역을 포함한 중서부지역이기 때문에 북한강유역은 현재까지 저부투공토기 분포의 북동쪽 한계로 생각된다.

조기로 편년되는 홍천 외삼포리유적 5호 주거지 출토 토기가 현재까지 가장 이르지만 조단 한 사례에 불과하고 이후 전기 전반에 연속적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가평 대성리유적·가평 신천리유적·가평 달전리유적·춘천 거두리유적·춘천 하중도유적(D·E지구)·춘천 금산리유적·춘천 천전리유적·화천 거례리유적(1구간)에서 총 24점이 출토되었으며, 이 중 13점이 하류인 가평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상류로 갈수록 빈도가 감소하여 저부투공토기의 확산과정을 보여준다. 저부투공토기가 출토되는 대다수의 유적에서 공열토기·일단정축(일체형축)·유구석부 등이 공반 출토되고 있으며 문양이 없는 무문토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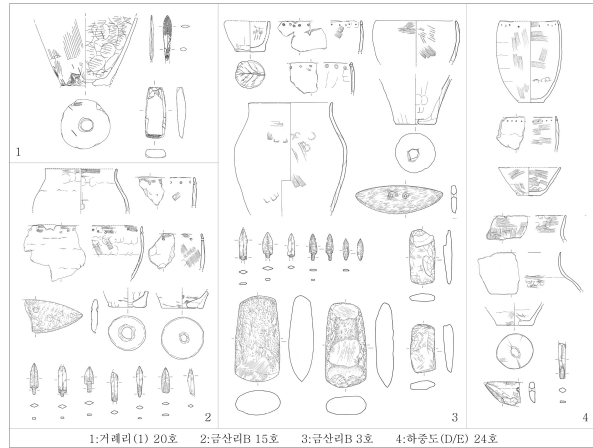
도면 5. 북한강유역 출토 저부투공토기와 공반유물(1)

으로 낮다는 점에서 전기 후반~중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5·6).

저부투공토기는 산청 옥산리유적 24호 수혈유구에서 5개의 소공이 뚫린 소형의 발형 시루가 출토된 바 있고(국립중앙박물관 2000:141), 저부투공토기를 동일유적 내에서 출토되는 시루의 祖形으로 보는 견해(서영남 1998:183~184)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기능은 單孔시루설이다. 이를 가정한다면 출토된 저부투공토기 대부분이 심발형²⁾

의 기종이며 호형토기에 얹어 음식물을 찌는 방식으로 사용했을 것이므로, 저부투공토기의 사용은 찌는 조리법의 확산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강유역에서의 저부투공토기의 출토량과 빈도로 볼 때, 이러한 조리법의 영향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루를 이용해 음식물(밥)을 찐 경우 열기와 함께 고유의 수분이 증발해 현재 주식으로



도면 6. 북한강유역 출토 저부투공토기와 공반유물(2)

섭취하는 밥에 비해 ‘고두밥’의 형태가 되었다는 취사실험결과(음식고고연구회 2011:117~118)에서 쌀보다는 거친 잡곡³⁾이나 채집된 견과류·근경류 등이 식재료였을 당시의 북한강유역의 환경을 감안한다면, 저부투공토기가 전래되었으나 이를 이용해 찌는 조리방식이 적합치 않으므로 중기 후반을 기점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강유역의 취락에서 빈번하게 출토되고 있는 연석류와 절구 등의 연마구와, 외면으로 유기물이 흘러넘친 취사흔이 있는 토기류들로 보아 곡물 등의 식재료를 분쇄해 물과 혼합하여 죽(수프)과 같은 상태로 끓이는 조리법이 좀 더 적합한 섭취방식으로 판단된다.

3. 토기의 재활용

재사용과 재가공은 동일한 재활용(recycle)의 범주에 속하지만 전자는 본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후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여 본고에서는 이를 구분하였다. 재활용은 「제작→운반→사용→폐기→매몰→출토→보관→관찰」 순의 토기의 life cycle(쇼다신야 2009:158)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석기와 함께 개별가옥을 위시한 취락과 지역집단의 자원 재활용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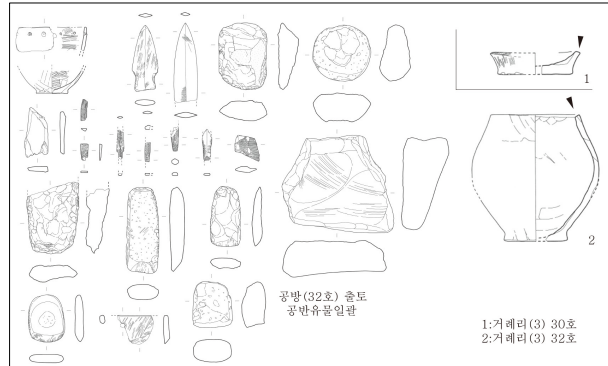
이러한 토기의 재활용은 북한강유역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공통적인 현상이

2) 저부의 형태로 출토된 것이 대부분이라 정확히 판별할 수는 없지만 저부와 동체의 연결각도를 감안하였을 때 대부분의 저부투공토기는 심발형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강유역에서는 가평 대성리유적 17호 주거지 출토품만이 호형토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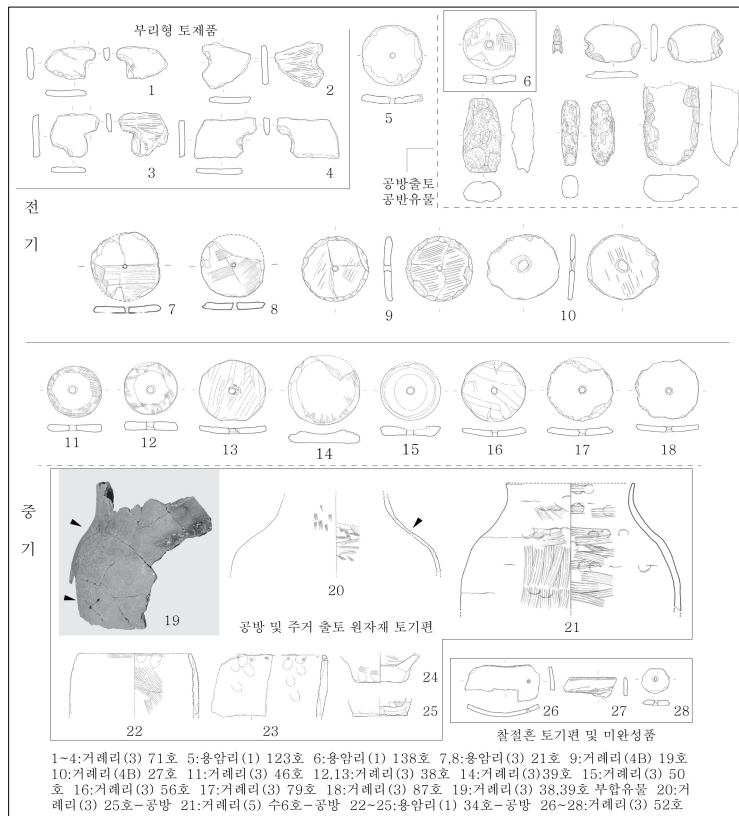
3) 당시의 기후조건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최근 철기~삼국시대 취락인 원천리유적에서 소량인 쌀에 비해 보리, 콩, 팥, 조, 피, 기장, 대마 등의 잡곡류가 주로 출토(이희경 2013:272~282)되는 등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쌀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만 북한강 상류의 화천 용암리유적
과 거례리유적의 개별주거와 공방에
서 출토된 재가공 토제품과 일련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다(도면 8).
이를 통해 원자재로서의 토기편 중
곡률이 커 토제품 제작이 용이한 부
분(대형 호형토기의 견부·동체, 무
문토기 저부 등)을 공방에서 보관·
제작하고, 원자재와 미완성품을 개
별주거로 분배하여 제작·완성하는

방식을 유추할 수 있다. 토기의 재사용 또한 개별주거와 공방에서 제작되는 전기 후반에서
중기에 이르는 석기의 생산체계와 소비과정이 흡사하다(도면 7). 특히 주거의 형태와 출토
유물에서 동시기성이 확보된 화천 거례리유적 중기의 주거군집 내에서 유행했던 토기의 재
활용방식을 보여준다.



도면 7. 화천 용암리·거례리유적(3구간) 출토 재사용 토기의 예



도면 8. 화천 용암리·거례리유적 출토 토제품(부리형 토제품·방추차)

Ⅲ. 석기의 생산과 소비

1. 생산·소비단위의 변화와 제작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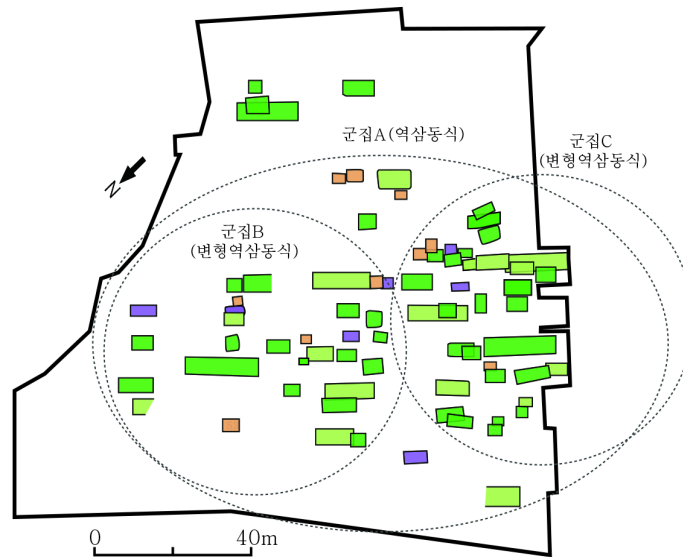
1) 생산·소비단위의 변화

북한강유역의 석기 생산·소비단위는 <표 2>와 같이 초기~전기 전반 개별주거단위로부터 주거 내부의 생산공간이 별도로 마련되는 개별주거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 전기 후반 일부 유적을 중심으로 개별주거와 공방, 저장과 폐기 등 다양한 수혈(소비공간)이 결합된 군집이 형성되고, 중기 이후에는 북한강유역 전반으로 확산, 지속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결국 토기에 비해 생산과 소비의 맥락이 뚜렷한 석기와 주거·취락의 변화에 의해, 초기~전기 전반(1단계), 전기 후반~중·후기(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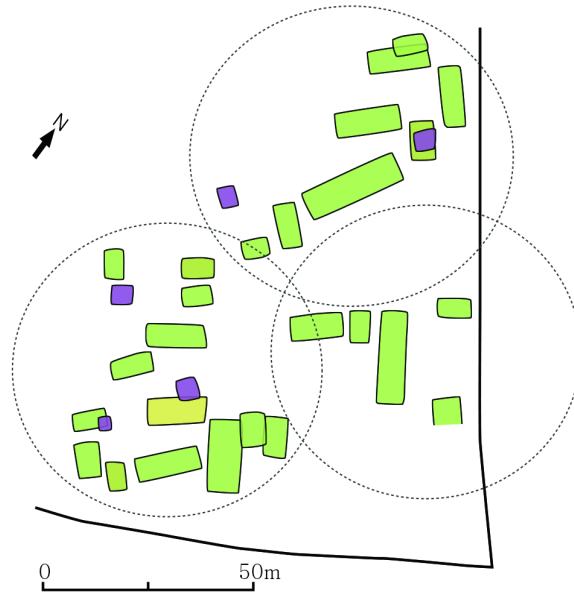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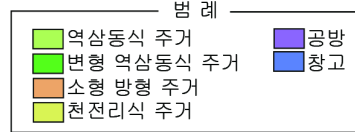
표 2. 석기 생산단위의 변화

초기 ~ 전기 전반(1단계)	전기 후반 ~ 중기(2단계)	후기(점토대토기문화 도입 후)
- 점·선상 / 면상 취락배치 - 대형 (장)방형 / 가락동식 / 역삼동식 주거	- 다면상 취락배치(주거군집) - (변형)역삼동식 / 천전리식 / 소형 방형 주거	- 다면상 / 면상(통합) - 천전리식 / 소형 방형(점토대토기 주거포함)
- 개별주거단위 생산·소비 - 주거 내 생산공간 분화 (무시설·작업공 배치공간) - 석기의 미분화	- 전기 후반 북한강 상류를 중심으로 공방 출현 - 주요기종 중심의 공방 생산 + 주요기종 및 그 외 기종의 개별주거 생산	- 취락 내 공방 유지 - 석기 기종의 축소와 기종의 단순화 (석창·석촉·석부·석착)

이와 같은 생산단위의 변화에는 공방의 출현이 가장 큰 기준이 된다. 금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공방으로 보고되지 않았던 외부 시설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전기 후반에 공방이 확인된 유적으로는 화천 용암리 I·거례리·원천리유적·춘천 우두동 I·신매리(신매대교부지·신매제1제방)·현암리·거두리유적(총 25동) 등 북한강 상류에 소수 집중되었고, 중기 이후에는 대다수 유적(화천 용암리·거례리(3~5)·원천리·춘천 천전리·우두동 I·II·신매리(신매대교부지)·금산리·현암리·하중도(D~F)·송암동·홍천 철정리·가평 달전리유적)에서 총 62동의 공방이 분포한다. 특히 용암리유적 I의 전기 후반에는 주거 내부에 작업공이 설치되었거나 생산활동이 가능한 무시설공간이 확보된 (변형)역삼동식 주거가 다수 축조되었고, 이와 함께 공방이 구축되는 현상이 뚜렷하여 전기 후반 생산단위의 변화는 용암리유적으로부터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도면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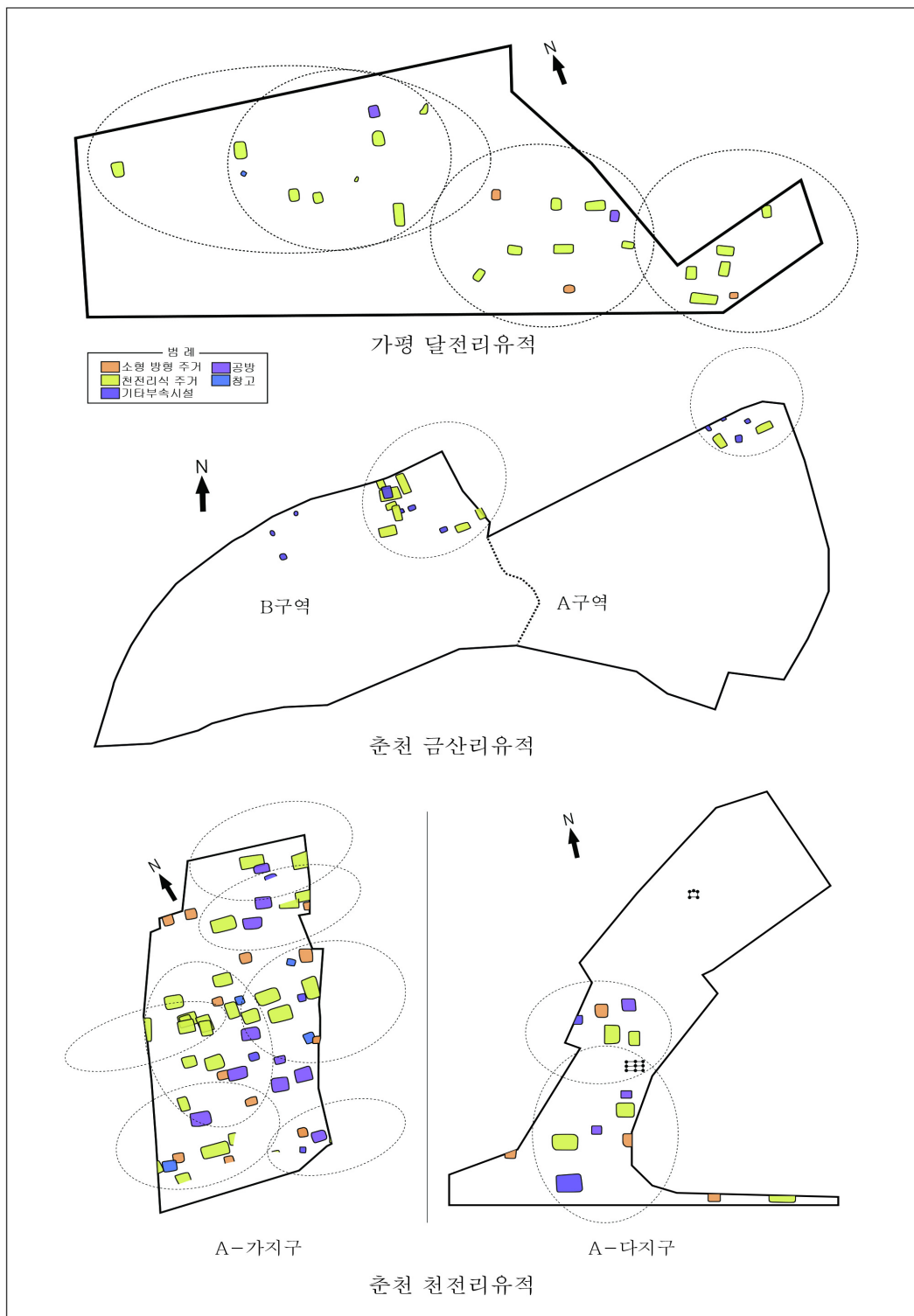


-용암리유적(1) 전기 취락



-현암리유적 전기 취락

도면 9. 청동기시대 전기 취락의 구조



도면 10.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 취락의 구조

전기 후반을 기점으로 한 변화는 뚜렷하지만 후기 생산단위의 파악은 미진한 편이다. 현재까지 후기로 판단되는 유적들 대부분이 중기 취락의 연장선상에 있고, 주거와 유물의 수가 적어 정확한 양상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후기 단위의 파악은 뚜렷치 않다. 다만 방형화된 중기의 천전리식 주거, 소형 방형 주거, 점토대토기를 공반하는 소형 (장)방형 주거가 중기의 다면상 혹은 취락별로 통합되어 하나의 면을 구성하는 면상구조를 이루었고, 생산과 소비단위에는 이러한 취락양상이 반영되어 중기와 유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취락구조적인 차원에서 북한강 상류로부터 공방 설치가 확산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기 후반 이후 특정 집단에 공방이나 유물이 편중되거나 혹은 특정 유물의 편중 현상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락 내 공방이 설치된 전문적인 생산집단(취락)으로부터의 석기 유통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취락 간에 석기제작기술을 여러 방식으로 공유하거나 인접 취락으로부터의 석기의 반입과 반출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공방과 일반주거에서 출토된 완성 석기와 미완성 석기의 수량 비교에서 전기 후반과 중·후기 공방 내 미완성 석기의 출토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석기를 제작하는 공간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유물로서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방 내에서는 이러한 미완성 석기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석재와 부산물들이 출토되었으므로 석재의 보관과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주거 내에서도 완성 석기와 미완성 석기의 점유율이 전기 38.8%~42.2%, 중·후기 42.8%~43.3%로 대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석기의 생산 공간이 공방으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표 3). 반면 일반주거와 공방에서 출토된 기종 또한 동일 분기 내에서는 석촉·석부·석창 등의 주요 석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되는 석기의 기종도 주요 석기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표 4 / 도면 11·12).

표 3. 시기별 석기(주요기종) 생산양상

		완성 석기	미완성 석기	제작도구
조기 일반주거		39.6%(173점)	43.5%(190점)	16.9%(74점)
전기	일반 주거	38.8%(692점)	42.2%(752점)	19%(339점)
	공방	65%(66점)	11%(11점)	23%(23점)
중·후기	일반 주거	42.8%(970점)	43.3%(981점)	13.9%(314점)
	공방	4%(12점)	73.7%(219점)	22.3%(66점)

표 4. 시기별 주요기종 미완성 석기류의 점유율

		석촉	석부	석창	석도
조기 일반주거		33.9%(37점)	39.4%(43점)	13.8%(15점)	12.9%(14점)
전기	일반 주거	64%(318점)	16.7%(83점)	13.5%(67점)	5.8%(29점)
	공방	29.8%(14점)	44.7%(21점)	19.1%(9점)	6.4%(3점)
중·후기	일반 주거	56.4%(325점)	17%(98점)	21.4%(123점)	5.2%(30점)
	공방	39.1%(59점)	32.5%(49점)	24.5%(37점)	3.9%(6점)

*주요기종으로 한정하였으며, 미완성 석기류에는 재가공중인 개체도 포함시킴.



도면 11. 전기 공방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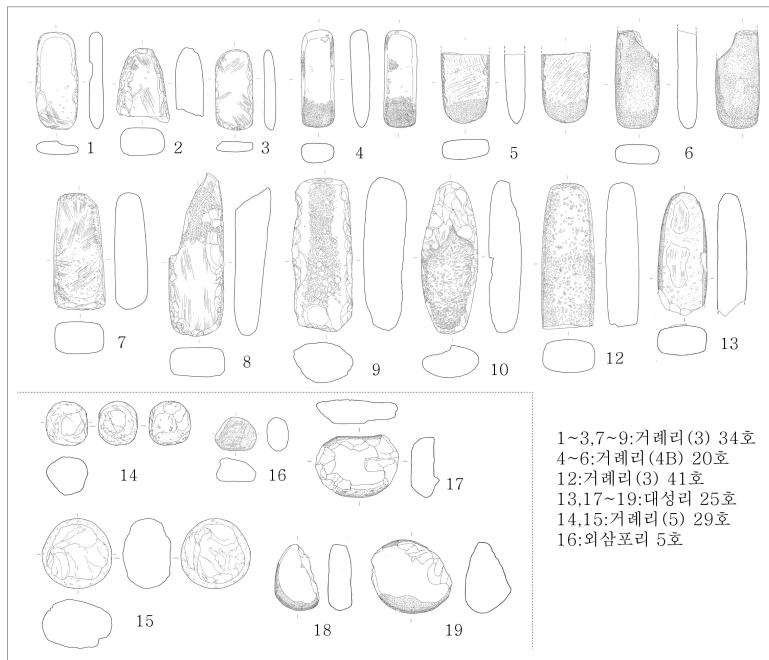


도면 12. 중후기 공방 출토유물

2) 제작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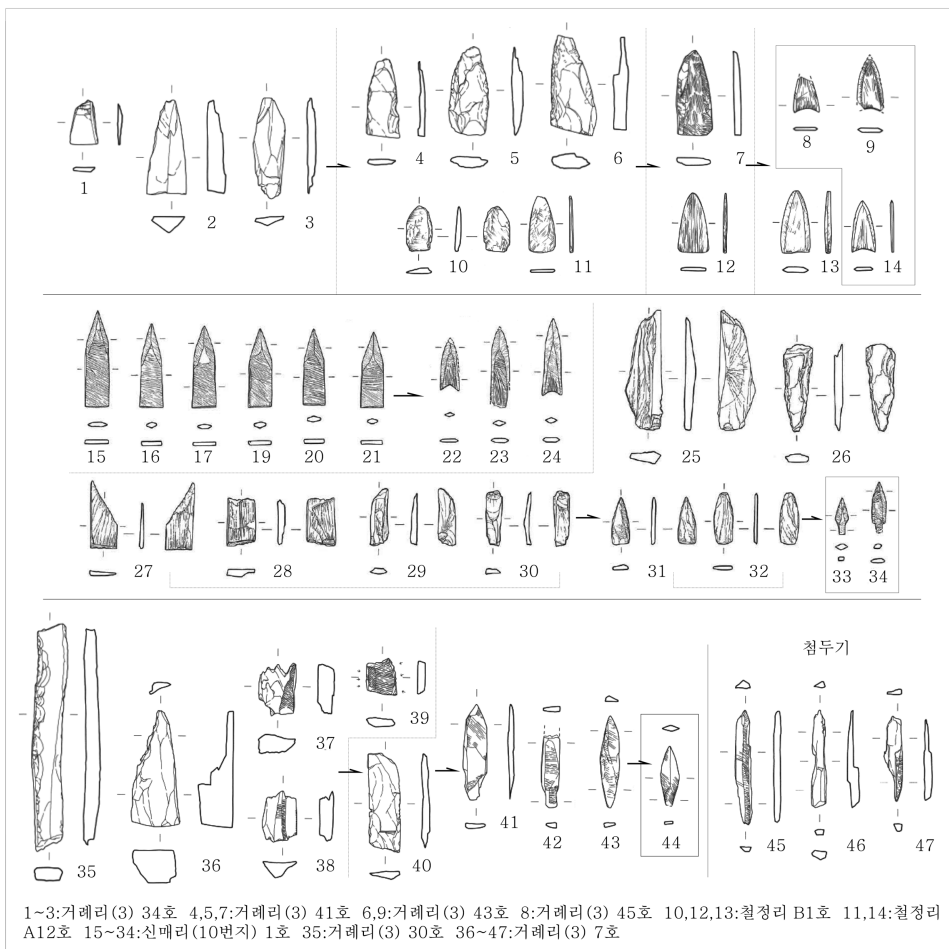
마제석기의 제작순서는 제작기법에 따라 타격으로부터 마연에 이르는 「타격(찰절)-고타-조마-정마」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집된 원자재 본연의 상태와 분할 석재의 상태 등 제작조건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략적인 형태갖추기-세부제작-마연」의 순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생산공간에서 발견되는 석재(원석·몸돌·격지)와 미완성 석기의 양상으로 보아 북한강유역 석기의 원자재는 川石(강돌)을 주로 사용하였으며(김선주 2007:559), 석촉·연석(작업대)·원판형 석기와 같은 일부 석기에 한해 할석을 이용했다. 이러한 원자재의 상태에 따라 석재의 분할시 친석은 직·간접타격, 할석은 찰절과 간접타격이 주로 적용되었다. 석재의 형태가 본래 제작하고자 하는 석기의 형태와 유사한 경우에는 타격을 생략하고 고타와 마연을 통해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완성 석부에 베풂어진 제작기법을 통해 초기에는 되도록 석부의 형태에 가까운 석재를 선택해 타격을 최소화하였고 고타를 통해 형태를 갖추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타에 사용된 도구는 망치형 석기, 망치돌 등으로 지칭하는 고석류가 사용되었는데, 고타면이 연속적으로 좁은 부위에 한해 규칙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직접타격 보다는 목제 혹은 녹각제 췌기와 고석(망치돌)을 이용한 간접타격으로 추정된다. 고타 기법은 각종 석기류에 통용되었고, 중후기로 가면서 석기의 형태를 갖추는 단계보다는 마연 전 세부제작 혹은 마연을 대체하는 기법으로 변화한다(도면 13).



도면 13. 초기의 석부와 고석류

북한강유역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석촉은 분할방식에 따라 두께가 일정하고 석촉 제작에 알맞은 판상의 석재(천매암·세일)를 일정하게 분할해 제작하는 방식과 채취한 할석재를 간접타격 방식으로 분할해 제작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전 시기에 걸쳐 후자의 간접타격 방식이 선호되었고, 길게 분할된 석재의 측면이나 상단부를 재차 간접타격한 후 2차 분할과정에서 췌기를 사용해 부러뜨리거나 찰절하는 방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 전자의 방식이 균일한 크기의 석촉을 버려지는 석재 없이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기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판상의 석재를 제작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분할된 석재(석촉재)를 이용해 일체형이나 일단경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크기와 변형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고, 석촉 제작이 어려운 경우 첨두기와 같은 다기능구를 제작할 수 있었다(도면 14).



도면 14. 석촉의 제작단계별 유물

2. 석기의 조합과 소비(표 5·6 / 도면 15·16)

각 시기의 석기 조합을 통해 초기에는 석촉과 석부, 석착, 석도 등의 주요기종 뿐만 아니라 주거마다 출토되는 다수의 석기제작구(지석·고석류)와 석재, 석기 부산물들을 통해 개별주거단위에서 석기를 생산·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각 기종별 형태분화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정형의 석기류(무투공 석도)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석기의 기능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으나 초기의 석도의 기능을 농경구로 한정짓기보다는 다기능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전기에는 초기에 사용되었던 주요기종이 쓰임새에 맞게 다변화하는 가운데 몇 가지 형태로 축약, 정형성을 갖추게 된다. 특히 목재 가공구의 종류가 다양해져 목재 가공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석도 보다는 석부의 점유율이 증가하였고 석촉과 석부를 중심으로 한 석기의 생산은 전기 후반에 출현한 공방 출토 석기류의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외에 첨두기, 환상석부, 원판형·부리형 석기 등이 소량 생산되었는데, 기능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석기제작구의 증가와 함께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석기류를 제작해 비로소 석기의 조합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후기의 주요기종들을 전기와 비교해 보면 다양했던 석기의 조합이 유지되며 중기 후반으로 가면서 석촉과 석부, 석도 등은 세부 기종구성이 단순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석재로 반드시 제작되어야 하는 주요기종을 제외하고 목기로 대체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며, 주거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석기의 출토량과 석착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목기류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중후기 석기의 점유율은 일반주거의 「석촉·석착·석부·석도」, 공방의 「석촉·석부·석착·석도」 순으로 석부와 석착의 점유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반주거에서의 석착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공방 내에서는 여전히 석부의 생산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다루기 힘든 석부 석재의 특성상 점차 소형화되는 일반주거에서 제작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나타나는 점유율의 차이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주거와 공방에서 출토되는 석부의 형태를 통해 공방에서는 주로 타격과 전반적인 형태를 갖추는 공정을, 일반주거에서는 마연과 인부의 가공이 이루어지는 등 제작과정의 분리 경향이 확인되지만 완전한 분리라고는 할 수 없다.

시간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석기조합이 완성되었으며, 특히 석착류를 이용해 목기류를 제작·증가했다는 유추는 상당수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북한강 유역의 경우에도 후기의 석기조합이 단순화되는 현상도 석기의 목기 대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목기의 증가를 농경구의 증가와 농경의 정착 혹은 집약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단선적인 해석일 수 있다(김권구 2008:62 ; 허의행 2006). 이러한 시각에서 석부와 석착류의 증가를

건축자재를 확보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구류의 증가로 보는 시각 또한 개별주거와 시설물이 증가하는 취락의 변천과정에서 가능한 해석이다. 굴지구 또한 농경과 관련해 해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이지만, 목기가 일반화되기까지는 주거와 시설물 구축을 위한 지면 굴착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도는 인부를 이용해 흙거나 끊어내는 방식을 기본기능으로(손준호 2006:25), 일부 유물에 대한 사용흔 분석을 통해 벼과식물의 수확도구로 밝혀진 바 있으며(유병록 2013:48), 북한강유역 청동기시대 중후기의 석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경과 관련된 수확구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조기에 사용된 형태상 非정형의 무투공 석도는 양인을 직인을 이용해 수확뿐만 아니라 채집된 구근류나 동물성 식재료의 분할과 손질 등에 다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농경 수확구로 단정지를 수만은 없다(김민지 2012:75~79).

표 5. 북한강유역 석기의 용어와 분류의 수정안(홍주희 2012:332 표9 일부수정)

용 어		기 본 기 능	용 도 분 류	
기 존	수정안		기 존	수정안
석검	석검	봉부를 이용해 찌르거나 베어냄	무기용, 수렵용, 의례용	무기용, 수렵용, 의례용, 부장용, 수확용, 식량처리용
검파두식	검파두식	석검의 손잡이	무기용, 수렵용, 의례용	무기용, 의례용
석창	석창	봉부를 이용해 찌름	무기용, 수렵용	무기용, 수렵용
석촉	석촉	활(원동력)을 이용해 날아가 피사체에 충돌과 축신이 박힘	무기용, 수렵용	무기용, 수렵용, 부장용
석부	석부	호상의 인부를 이용해 찍는 기능	벌목용, 농경용	벌목용
	석착	직선상 호선상의 인부로 면을 고르게 하거나 구멍을 파냄	목재가공용	목재가공용
괘이/굴지구	굴지구	하단의 인부가 지표면에 박힘으로써 흙을 파 내거나 긁음	농경용	굴지용, 농경용
반월형석도	석도	인부를 이용해 흙거나 끊어냄	농경용	수확용, 식량처리용 외 다용도
동북형석도		인부를 이용해 흙거나 베어냄, 석도 등의 기능도 가능	농경용	
고석/ 봉상석기	고석(류)	폭이 좁은 단부를 이용해 주로 두드리며 일부 연마에 사용	석기제작용	석기제작용, 식량처리용
고석/망치돌				
지석	지석	연마함	석기제작용	석기제작용
연석	연석	넓은 면을 위주로 연마하며 주로 전·후면을 이용함	식량처리용	식량처리용
방추차	방추차	굴대에 끼워 회전력을 이용해 실을 자아냄	방직용	방직용
어망추	어망추	흙이 난 부분에 어망을 감아 연결함	어로용	어로용
국부마연석기	찰절구	인부를 이용해 마찰하여 끊어냄	-	석기제작용
부리형 석기	부리형 석기	흙날 혹은 부리부분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	석기제작용, 굴지용, 수확용, 의례용	의례용
원판형 석기	원판형 석기	추정불가	추정불가	토기 혹은 목기의 뚜껑?
타제석기/박편석기/미완성석기/용도불명석기	용도불명석기	추정불가	추정불가	추정불가

필자는 본고를 통해 농경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유물은 시공간적 맥락에 의해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강유역의 취락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류는 조합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행위 또한 일상에서 상징적인 기능에 이르는 다차원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계방식과 같은 석기류를 통한 상위 해석에 앞서 출토맥락과 기본기능에 충실함으로써 당시의 소비패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면서 다양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표 6. 분기별 석기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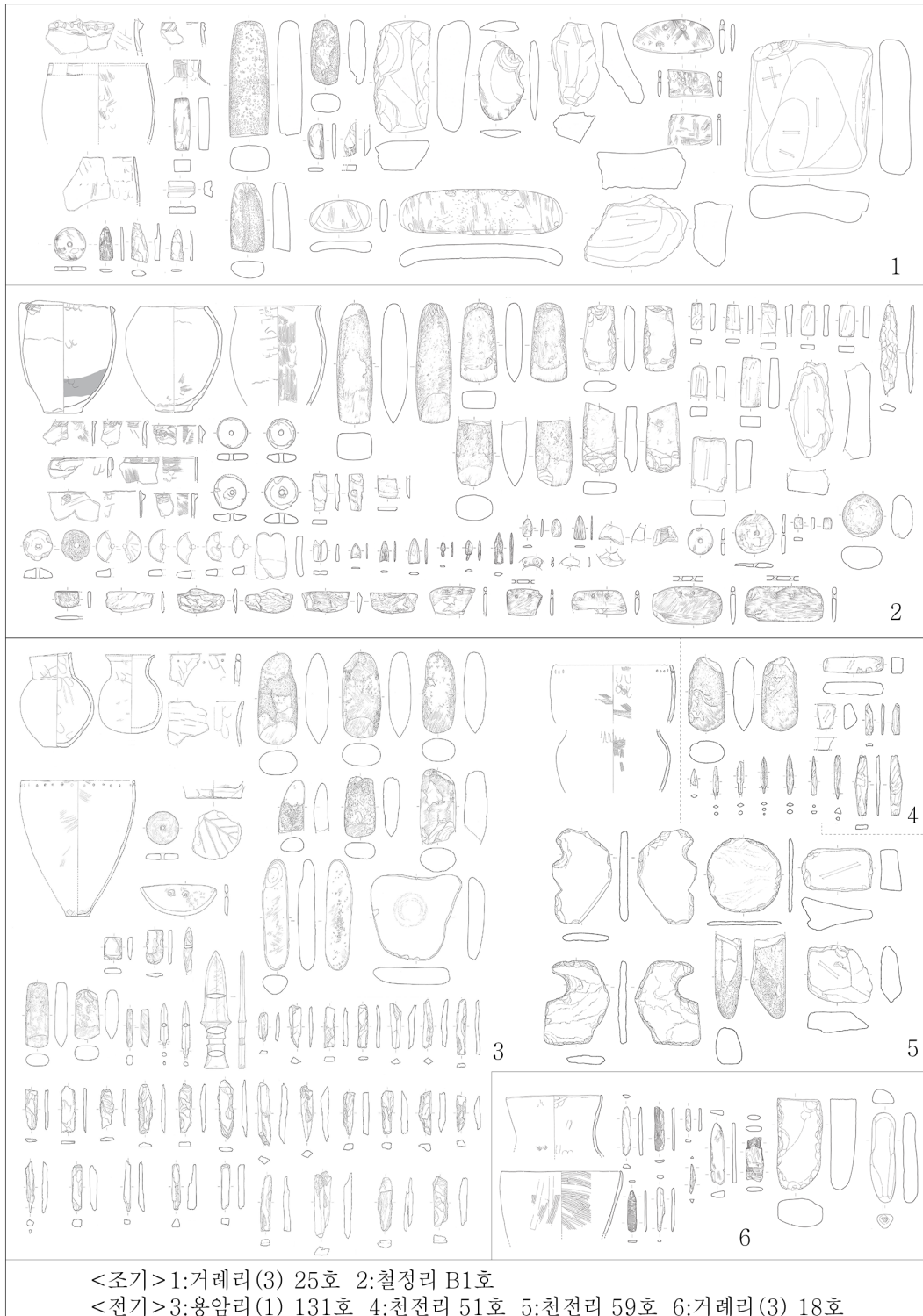
분기		기종		석검	검파두식	석창	석촉	석부	석착	석도	방추차	어망추	굴지구	연석	지석	고석	찰절구	천공구	첨두기	환상석부	목	공구형석기	원판형석기	부리형석기	석검	석추	발화석	미완 / 불명	합 계
		석검	검파두식																										
조기 41동		1	-	1	76	63	47	70	15	3	5	10	51	13	1	2	-	-	3	5	-	-	-	-	-	-	78	444점	
		0,2	-	0,2	17,1	14,2	10,6	15,8	3,4	0,7	1,1	2,3	11,5	2,9	0,2	0,4	-	-	0,7	1,1	-	-	-	-	-	-	17,6	100%	
전기	일반 주거 213동	19	-	14	566	166	153	126	74	16	16	90	220	29	-	1	11	5	4	3	29	14	-	-	-	-	42	1,598점	
		1,2	-	0,9	35,4	10,4	9,6	7,9	4,6	1,0	1,0	5,6	13,8	1,8	-	0,1	0,7	0,3	0,3	0,2	1,8	0,9	-	-	-	-	2,5	100%	
	공방 25동	3	-	-	22	22	10	4	1	1	-	-	20	3	-	-	-	-	-	-	1	2	-	-	-	-	7	96점	
		3,1	-	-	22,9	22,9	10,4	4,2	1,0	1,0	-	-	20,8	3,1	-	-	-	-	-	-	1,0	2,1	-	-	-	-	7,5	100%	
중· 후기	일반 주거 421동	25	4	57	676	232	283	143	85	5	27	124	268	46	-	1	11	9	9	2	4	1	1	1	1	1	352	2,367점	
		1,1	0,2	2,4	28,6	9,8	12,0	6,0	3,6	0,2	1,1	5,2	11,3	1,9	-	0,02	0,5	0,4	0,4	0,1	0,2	0,02	0,02	0,02	0,02	14,9	100%		
	공방 62동	2	-	2	63	50	42	6	5	-	-	-	46	20	2	-	1	-	-	-	1	-	-	-	-	-	53	174점	
		0,7	-	10,7	21,5	17,1	14,3	2,0	1,7	-	-	-	15,7	6,8	0,7	-	0,3	-	-	-	0,3	-	-	-	-	-	18,2	100%	

* 판단 가능한 완성-미완성 석기들을 합산한 개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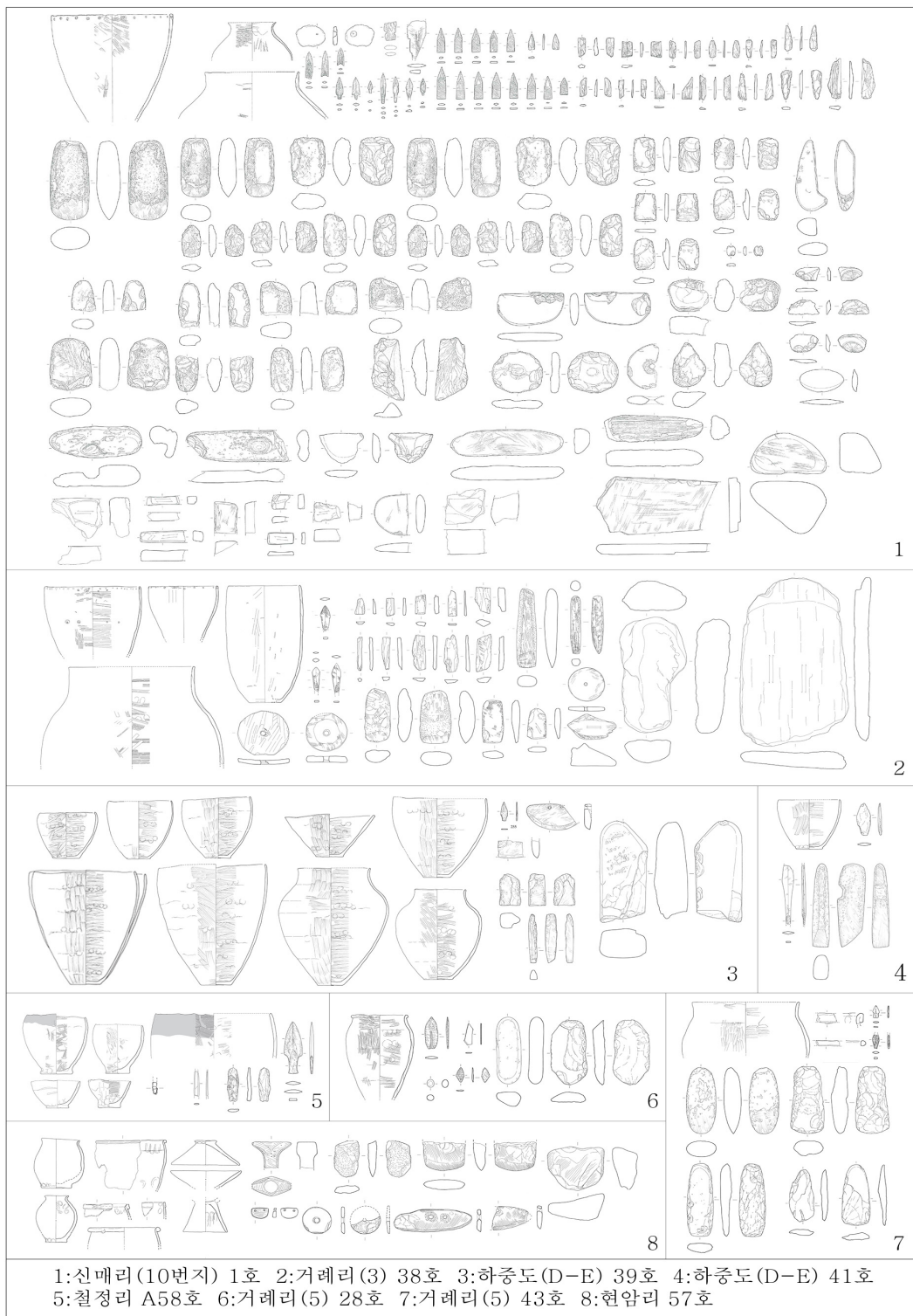
** 초기에는 석검(창)이 본격적으로 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른 형식이거나 초기 후반 내지 전기 전반의 병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유구(단)석부, 주상편인석부(대/소형)는 목재가공과 관련된 것으로 석착으로 분류함.

**** 제작 중 혹은 완성된 석기류 중 용도가 불분명한 개체는 미완/불명석기로 분류함.



도면 15. 북한강유역 조·전기 석기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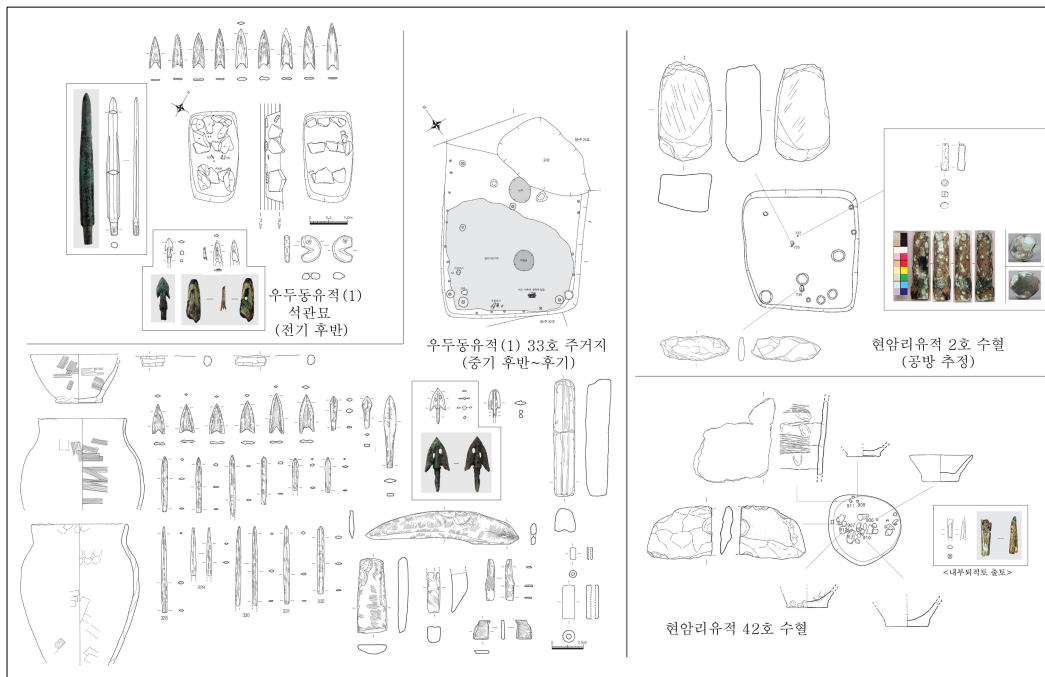


도면 16. 북한강유역 중·후기 석기조합

3. 특수재의 수급과 생산

1) 청동기

북한강유역에서 실제 발굴조사를 통해 수습된 청동기는 춘천 우두동 I · 현암리유적이며, 석제 검파두식이 출토되어 동검의 존재가 확실시 되는 유적은 화천 용암리 · 거례리유적과 춘천 우두동 · 현암리유적이다. 이 중 전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우두동유적 석관묘 출토 동검이 가장 이른 것이며, 우두동유적 I의 33호 주거지와 현암리유적 2호 수혈 출토 동촉과 동제품이 중기, 현암리유적 42호 수혈(2400±50B.P)에서 출토된 동촉이 후기에 해당한다(도면 17).



도면 17. 북한강유역 청동기 출토 예

이처럼 수량이 매우 적고 제작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된 예가 없기 때문에 청동기의 직접 제작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희소성이 높은 소재이기 때문에 형태가 변형되더라도 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는 재가공(수리)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또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북한강유역 또한 동일한 맥락에 속해 있다. 우두동유적 I에서 출토된 동검은 공반 출토된 유물로 보아 전기 후반의 비파형동검일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지만, 마연으로 인해 하단부 검엽의 일부만이 남아 있고 봉부 상단 또한 마연된 상태이다. 또한 공반 출토된 유경식의 동촉 역시 축신 상단의 인부 부근에 재

가공에 의한 능이 형성되어 있다. 즉 부장을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던 청동기를 부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양수 2013:77).

재가공의 구체적인 정황은 현암리유적 출토 동제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현암리유적 2호 수혈은 수혈유구로 분류했으나 미완성 석기(석도)와 지석이 출토되는 공방으로 판단된다. 이 유구에서 용도를 알 수 없는 청동기가 출토되었는데, 외면은 부식으로 인해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상하단에 마연흔이 있어 본래 제작된 용도를 벗어나 재가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42호 수혈 역시 폐기용 혹은 토제품을 만들기 위한 토기류나 석재·미완성 석기의 저장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유구에서 유공식 양익축의 공부편이 출토되어 사용했던 청동기를 폐기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를 별도의 소재로 파악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석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중기 이후에는 석기나 토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가공(재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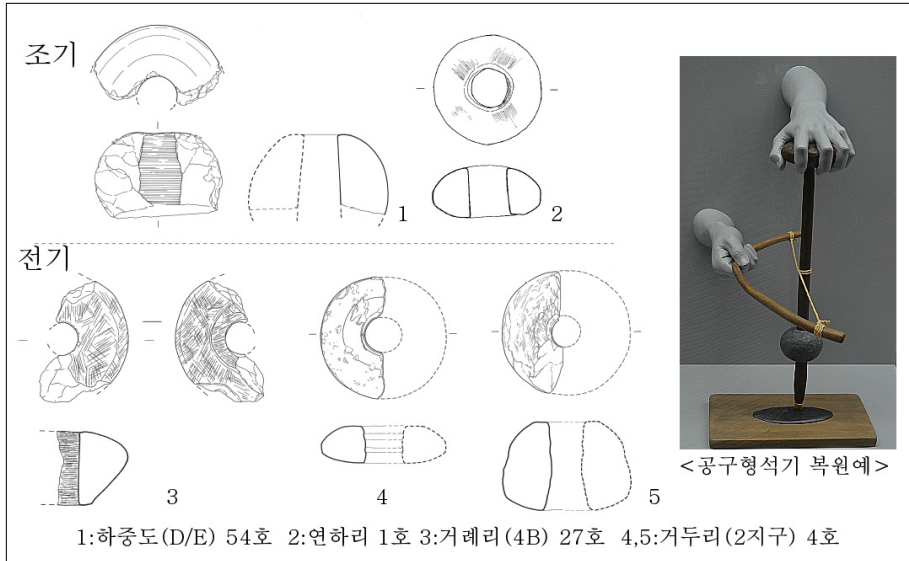
옥은 청동과 더불어 희소성이 있는 대표적인 특수재 중 하나이다. 북한강유역에서 옥의 출토예가 많지 않지만, 청동기 혹은 검파두식과 같은 부속구의 분포와 거의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옥제품의 형태는 조기에 수하식(非定形), 전기에 곡옥⁴⁾이 출토되었지만 대체로 조기로부터 중기를 거쳐 철기시대에도 관옥이 지속적으로 제작되는 가운데 전기에 환옥, 중기에 반원형 옥이 제작되어 후기에 이르는 양상이 확인된다(도면 19).

옥제품은 물질문화의 유통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소재이다. 특히 벽옥·천하석·녹주석 등 다양한 옥의 소재는 북한강유역 근처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원거리 유통 가능성이 매우 높은 품목이며, 완성된 옥제품을 유통하였는가에 관해서는 미완성품과 옥 가공구가 존재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북한강유역 내에서 확인된 미완성품은 드물고 옥 가공구로는 천공구와 옥마석이 확인되고 있다. 천공구는 가평 대성리유적과 춘천 현암리유적·거두리(2지구) 유적에서 錐形의 석영제 천공구가 조기로부터 중기에 해당하는 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지석의 중앙에 관옥 마연으로 생성된 긴 홈이 있는 옥마석 역시 화천 거례리(3·5구간), 홍천 철정리, 춘천 우두동 I, 춘천 신매리(신매대교부지)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 여기에 공구형 석기⁵⁾ 역시 천공 시 활비비를 고정하며 축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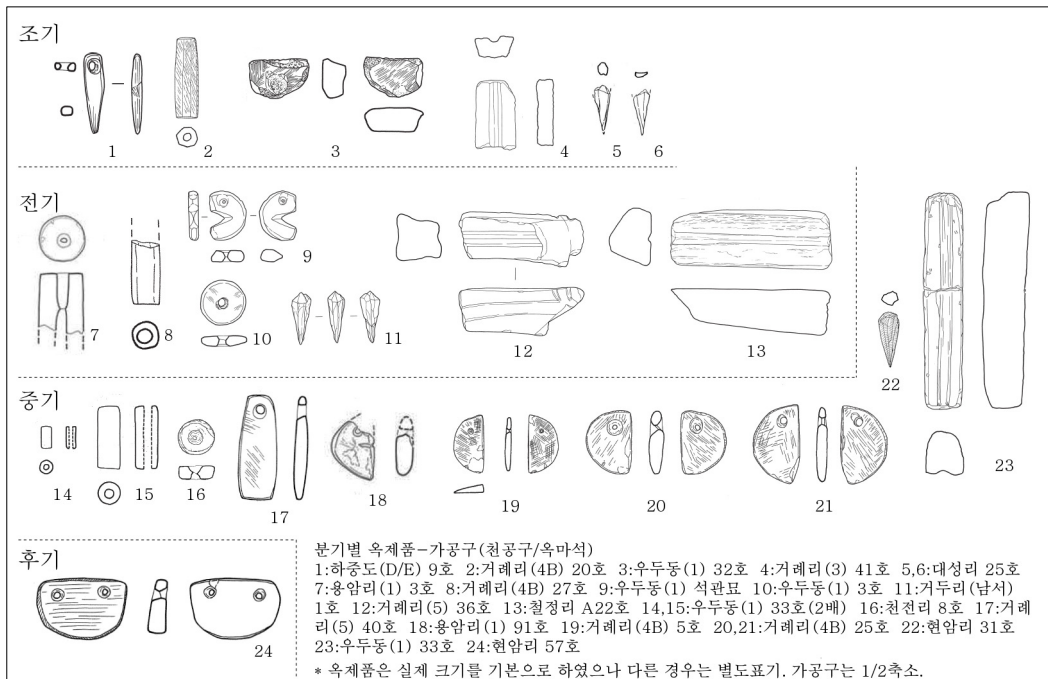
4) 도면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신매리유적(신매대교부지) 21호 주거지에서 곡옥 1점이 출토되었다.

5) 유병록, 2013,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 도구론』, 한국청동기학회 워크숍자료집, p46. 현재까지 조기의 유물 중 홍천 철정리유적 A12호 주거지 출토품과 같이 공구형 석기로 분류된 일부 유물 중 중앙부가 오목할 뿐 천공되지 않은 석기류는 활비비 사용시 사용되는 부속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제외한다.

옥의 제작에 관련된 도구로 생각된다(강원문화재연구소 2013:451~452). 옥마석과 천공구는 옥제품의 중간 혹은 마무리 제작과정에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미완성품의 유통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도면 18).



도면 18. 공구형석기와 복원 예



도면 19. 북한강유역 분기별 옥-가공구 출토현황

이러한 옥제품의 제작관련 유물들이 주로 청동기와 부속구가 출토되는 취락의 일반주거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옥이 지니는 위세품으로서의 상징성이 가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강유역의 경우 옥제품을 중점적으로 제작하는 전업적인 개별가옥 내지 취락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두동유적 I 의 33호 주거지와 신매대교부자유적 21호 주거지 내부에서 옥제품(관옥·곡옥)과 옥마석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IV. 북한강유역 경제활동의 변화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강유역의 생산과 소비는 초기로부터 전기 전반의 自家생산·소비단계(1단계)와 전기 후반부터 후기의 半공동생산·소비단계(2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표 7).

1단계는 점상 혹은 선상의 소규모 취락구조 내에서 돌대문토기단계의 대형 주거와 가락동식·역삼동식의 (초)세장방형의 개별주거가 주체가 되는 단계이다(이형원 2012:56~57). 일부 노가 설치되지 않은 소형 주거(하중도(D·E)유적, 연하리유적)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그 사례가 적어 이들 유적에서 이 소형 주거의 기능이나 개별주거와의 관계는 명확치 않다. 따라서 대형 혹은 세장방형 개별주거의 다세대 구성원이 역할을 분담해 생산과 소비를 주도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토기는 재가공 토제품을 제외하고 태토의 채취와 수비, 제작과 소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옥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초기와 전기 전반의 문양적인 요소는 다양하지만 쓰임새에 영향을 주는 기종이나 기형, 크기는 비교적 단순해 주로 옥내 저장용의 대형 호형토기를 제외하고 토기간 轉用率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토기류와는 석기의 생산은 가옥 내에서 행해졌다. 석기의 조합은 대체로 기능이 비교적 명확한 초기의 석촉·석부·석창·석도·지석·고석류·방추차·어망추·연석류·공구형 석기·옥 등으로부터, 전기 전반에 조합은 흡사하지만 정형성을 띠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석검과 기능이 명확치 않은 원판형 석기·부리형 석기 등이 추가된다. 이 중 석부류에 비해 석창류의 주거 내 출토량이 적고, 소형 주상석창이나 주상편인석부(중대형) 등은 전기 전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제작되어 목재의 가공과 가공된 목재를 이용한 제작기술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석기를 이용한 2차 생산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단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기의 제작방식에서 확인되는 찰절과 고타기법은 전기 전반에도 사용되지만, 석촉류 대부분이 찰절 보다는 간접타격으로 분할한 非정형의 2차 모암(석촉재)을 사용하는 방식을 따랐다. 초기와 전기 문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후반에 나

타나는 일부 공통된 토기류(외반구연토기)와 석기의 제작기법은 전기 전반 두 문화의 병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표 7. 생산과 소비를 기준으로 한 북한강유역 취락전개

편 년 안						생산 - 소비단계		해당 유적	
구분		주거형태	취락 구조						
조기		대형 주거	點狀/ 線狀	1단계 自家생산 · 소비	구조	- 개별가옥세대 중심		화천 용암리(Ⅰ·Ⅲ)·거례리·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우두동(Ⅰ)·신매리(제1제방·신매대교부지)·금산리·현암리·하중도(D·E)·거두리유적, 홍천 하화계리·외삼포리·철정리유적, 가평 달전리·대성리·연하리유적	
					토기류	· 옥외생산 · 다양한 문양요소 존재 · 대형 호형토기를 이용한 옥내 저장 · 기종과 기형, 크기의 미분화			
전기	전반	가락동식/ 역삼동식	線狀		석기류	· 개별가옥내 생산 · 석검의 출현, 석착류의 다변화(전기) : 석기조합상의 분화 (목제가공기술 상대적 미약) · 찰절/고타위주의 제작방식에 간접분할방식 추가			
	후반	역삼동식/ 변형 역삼동식/ 소형 방형	面狀	2단계 半공동 생산· 소비	구조	- 개별가옥내 생산 + 공동보관·생산 - 공방과 저장시설 등의 다양한 옥외시설의 출현(전기 후반)과 다수의 주거군집(일반 주거+공방+기타 옥외시설)		(2-1단계) 화천 용암리(Ⅰ·Ⅲ)·거례리·원천리유적, 춘천 천전리·우두동(Ⅰ)·신매리(신매대교부지·373-6·10·54-4번지)·금산리·현암리·하중도(D·F)·거두리·송암동·삼천동(순환도로)유적, 가평 달전리·대성리·신천리유적, 홍천 철정리·성산리유적, 남양주 장현리유적	
중기	전반	천전리식/ 소형 방형	多面狀		토기류	- 전기 후반~중기(2-1단계) · 轉用은 지속되나 쓰임새에 의한 기종과 기형의 분화 · 무문토기에 마연기법 채용 · 저장용 호형토기의 분화 · 저부투공토기의 유입과 소멸·소비방식의 차이 · 토기의 재가공/재활용에 필요한 자재 공유 - 후기(2-2단계) · 기종의 단순화/소형화(재지) · 점토대토기 관련 토기조합 도입(외래)			
	후반				多面狀	석기류	- 전기 후반~중기(2-1단계) · 석기조합의 완성과 기종별 분화 · 목제가공구 분화(목재 가공기술 발달)로 인한 목기이용(도구/건축 등) 활발 · 석촉/석부류 위주의 공방 내 공동생산 · 공방 내 원자재 공동보관 - 후기(2-2단계) · 석기조합의 단순화(석창/석촉/석부/유구석부 위주) · 재지 주거를 중심으로 지속적 공방 이용		
후기		천전리식/ 소형 방형 (점토대토기 주거 포함)	多面狀 / 面狀 통합	특수재		- 1·2단계 청동기·옥소재의 원거리 수급 - 거점 중심의 생산(재활용·재가공)과 소비		(2-2단계) 화천 거례리(3-5)유적, 춘천 천전리·현암리·하중도(D·F)·거두리(2지구)·철전동유적, 홍천 철정리·성산리유적	

2단계는 역삼동식 주거와 작업공이 부가된 변형 역삼동식 주거, 천전리식 주거, 점토대토기단계의 주거를 포함한 소형의 방형 주거가 주축이 되는 전기 후반~후기에 해당한다. 공방

과 저장시설을 비롯한 옥외시설이 확충되면서 2단계 취락은 몇 동의 일반주거와 공방 등의 옥외시설이 취락 내에서 다수의 군집을 이루는 多面狀의 구조를 보인다(김권중 2013:94). 취락의 구성요소 중 (장)방형의 공방은 화천 용암리유적·춘천 우두동유적 등 일부유적에서 전기 후반에 출현해 중기를 거치면서 춘천분지와 가평 등지의 대다수 유적에 확산된다.

2단계의 토기류는 (심)발형과 호형의 공열과 무문토기류가 주로 생산·소비되었는데, 토기의 소비 轉用은 지속되지만 기종별로 배식기와 자비용, 저장용이 구분되고 각각의 쓰임새에 알맞은 중소형의 다양한 개체가 생산되면서 1단계에 비해 전용의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 전반까지 생산된 마연토기와 적색마연기법이 적용된 무문토기류는 적용된 기종에서 1단계와 차이를 보이지만, 제작방식과 적색의 마연기법이 내포하는 의미가 전기로부터 중기 전반(2-1단계)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생산-소비과정과 취락구조의 전환은 상이한 주거간의 병존관계와 같은 연속선상에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루의 기능으로 추정되는 저부투공토기 역시 2-1단계에 중서부지역으로부터 북한강유역으로 유입되어 제작되었으나 중기 후반인 2-2단계에 소멸한다. 저부투공토기의 소멸원인은 찌는 토기의 소비방식이 당시의 북한강유역의 식생활에 적합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 후반(2-2단계)부터 소형화되고 단순화된 기형의 토기류가 생산·소비되면서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우각형과수부토기나 흑색마연장경호 등의 새로운 기종들이 출현한다. 화천 거례리유적(5구간)과 춘천 현암리유적 등에서 보이는 이러한 변화는 천전리식 주거의 규모의 축소·소형 방형주거의 증가와 같은 재지문화의 변화와 점토대토기 문화와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청동기시대 다양한 석기류의 조합은 2단계(중기 전반)에 완성된다. 2-1단계에 석검이 점차 소멸하면서 유병·유경식 석창이 급증하며, 석촉은 결구가 손쉬운 평근의 일단점촉과 일체형촉이 증가한다. 특히 소형 주상석창과 유구석부, 유단석부 등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석착류가 다량 제작되는 등 1단계부터 지속된 석부의 생산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목제가공구가 다양하게 분화한다. 목제가공구의 분화와 생산량 증가는 결국 다양한 기능의 목기의 제작 뿐만 아니라 목재 확보의 측면에서 석부류와 함께 이 시기에 증가하는 주거건축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북한강유역의 생산체계는 주로 석촉·석부·석창·석도 등의 주요기종을 중심으로 원자재를 보관과 분할·분배하여 공방과 개별주거에서 각각 제작하는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제작집단에 의해 미완성 단계의 석기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북한강유역 대부분의 취락에서 공방 혹은 공방으로 추정되는 수혈유구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수재를 제외하고 근거리 채집활동을 통해 암질 수급이 가능한 조건에서 무거운 석재 또는 (미)완성 석기를 생산·유통하는 전문적인 집단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은 현재로서

는 적합치 않다. 따라서 생산단계를 엄격히 분업화하거나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전업화된 취락의 존재를 상정할 수 없는 완벽히 분리되지 않은 半공동생산체계이며 이는 토제품의 재가공과 재활용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석기의 생산체계는 현재까지 유구간 중복관계와 배치양상을 통해 2-2단계에도 재지의 주거를 중심으로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현재로서는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증가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청동기와 관련 부속구(검파두식), 옥제품은 특수재로서 원자재 혹은 (미)완성품을 원거리로부터 수급했을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옥제품의 공방 제작예가 확인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옥가공구가 일반주거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거 단위로 제작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암리유적의 청동기 출토 예에서 석기를 제작하는 공방에서 청동기의 재가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재 또한 半공동생산·소비의 체계를 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청동기시대 북한강유역 경제활동의 생산주체가 개별주거단위에서 주거군집 내지 취락 단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反공동생산·소비체제로 전환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발표를 통해 토기와 석기의 몇 가지 생산과 소비의 특징을 통해 생산방식과 소비패턴에서 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조기와 전기 전반·전기 후반과 중기 전반의 다른 구조의 주거 병존에 의한 생산기술과 소비방식의 계승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후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취락의 변화과정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문화재연구소, 2013, 『춘천 하중도유적(D-E지구)』 상권.
 구혜영, 2013, 「청동기시대 중부지역 저부투공토기의 사·공간성」, 경희대 석사논문.
 국립중앙박물관, 2000, 『겨레와 함께 한 쌀』.
 김권구,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 : 남한지역의 목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김권중, 2008, 「강원 영서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취락 구조의 변천」, 『한일취락의 연구-생산유적과 취락유적』, 제4회 공동연구회, 한일취락연구회.
 김민구, 2010, 「곡물의 저장과 저장혈」, 『청동기시대 생업에서의 저장의 역할』, 한국청동기학회 생업분과 2010년 워크숍 자료집.
 김민지, 2012, 「청동기시대 개시기의 한강 중상류지역 석기 양상」, 영남대 석사논문.
 김선주, 2007, 「부록 : 1. 화천 용암리유적 뎀석기(타제석기) 검토」, 『용암리』, 강원문화재연구소
 김한식, 2008, 「경기지역 역삼동유형의 정립과정」, 『고고학』 5-1호.
 노혁진, 1987, 「紅陶」, 『한국사론』 17, 국사편찬위원회.

- 박경신, 2004, 「한반도 중부이남지방 토기 시루의 성립과 전개」, 숭실대 석사논문.
- 박상윤, 2011, 「청동기시대 전기 호형토기의 변화양상」, 『한국청동기학보』 제9호.
- 서영남, 1998, 「봉황대 출토품을 통하여 본 연질토기와 도질토기의 문제」, 『김해봉황대유적』, 부산대박물관.
- 손준호, 2006, 「한반도 청동기시대 마제석기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 송영진, 2003, 「작색마연토기에 대한 일고찰」, 경상대 석사논문.
- 안재호, 2000, 「한국 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34, 한국고고학회.
- , 2009, 「남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엄진영, 2008, 「강원 영동·영서지역 출토 점토대토기의 과학기술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오후배, 2002, 「우리나라 시루의 고고학적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 유병록, 2013, 「석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 도구론』, 한국청동기학회 워크숍자료집.
- 음식고고연구회, 2011, 『취사실험의 고고학』.
- 이양수, 2013, 「청동기의 매납과 부장」, 『청동기시대 도구론』, 한국청동기학회 워크숍자료집.
- 이지현, 2006, 「강원 영서지역 토기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특성 검토」, 공주대 석사논문.
- 이진민, 2005, 「중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중기 문화에 대한 일고찰」, 『송국리문화를 통해 본 농경 사회의 문화체계』.
- 이형원, 2010, 「경기지역 청동기·초기철기문화의 최근 조사성과와 연구쟁점」, 『대학박물관과 지역 문화의 협력』.
- , 2012, 「중부지역 선사 취락의 공간구조」, 『마을과 도시의 고고학』, 중부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희경, 2013, 「7. 화천 원천리유적 출토 식물유존체」 『화천 원천리유적-제4권 : 본문3·부록』.
- 허의행, 2006, 「무문토기시대 취락입지와 생계경제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홍주희, 2012,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석기의 기능영역 : 북한강유역 출토 석기의 검토」, 『인류학 고고학 논총』.
- 쇼다 신야, 2009, 『청동기시대의 생산활동과 사회』, 학연문화사.
- 키스 윌킨스 · 크리스 스티븐스 著(안승모·안덕임 譯), 2007, 『환경고고학』, 학연문화사.

* 주석으로 직접 인용한 유적을 제외한 개별유적의 보고서는 생략하였음.